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19호【루계 제2327호】

주체104
(2015). 5.
9
토요일
음력 3. 21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와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형식이 새롭고 특색있는 멋쟁이 건축물이 일떠섰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정말 잘 지었다고 하시면서 우주정복의 길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건축물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의 모든 건축물들과 요소요소를 실용성, 편리성, 미학성이 철저히 보장되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건설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가 일떠선 곳의 해발고는 비록 높지 않지만 이곳은 우리 민족의 존엄이 응축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고 하시면서 선군조선의 종합적국력과 과학기술발전을 보여주는 척도답게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훌륭히 건설한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군인건설자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날 총대가 없어 망국노의 운명을 겪어야 했던 우리 나라가 오늘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위성을 만들고 쏘아올리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올라섰다고 하시면서 평화적인 우주개발은 우리 당과 인민이 선택한 길, 선군조선의 합법적인 권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는 적대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으며 우주개발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진행하는 중대사인 우주개발분야에서도 최첨단을 돌파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당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련이어 우주를 향하여 날아오를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가우주개발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조국, 인민의 기대를 항상 명심하고 우주과학연구와 위성발사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개건한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가공직장, 조립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로동계급이 기계제작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집단적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최첨단기계제품들을 창안제작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새로 제작한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이 정말 멋있다고, 이것만 놓고보아도 최근년간 우리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이 크게 도약했다는것이 알린다고 거듭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금 여러 부문들에서 더 많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것과 함께 빠른 시일안에 새 제품개발사업을 완전무결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보여주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하였다고 하시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힘이 난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은 쇠소리가 쟁쟁 나는 힘있는 정치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매 종목들에 당정책이 정확히 반영되고 공장애가 차넘치며 공장로동계급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성격이 그대로 담겨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로동계급이 나라의 기계제작공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참 다운 민족정신을 본다

세계에는 많은 민족이 있고 민족마다 지주로 삼고있는 정신이란것이 있다.

장구한 인류력사에는 자연계의 태양숭봉을 정신적인 힘으로 여긴 종족도 있었고 자기 씨족의 수호신으로 동식물을 숭상하고 내세우는 토템과 같은 숭앙정신도 있었다. 자기 발전과 보존을 위한 정신을 모색하며 모대긴 민족도 있었고 령토팽창과 략탈로 지구상을 어지럽힌 광란의 세월도 있었다.

민족이 어떤 정신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은 민족나름대로 각이했고 그에 따라 어떤 민족은 부흥하기도 했고 어느 민족은 멸망하여 력사에서 자취를 감추기도 하였다.

그러면 조선민족의 정신은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 나는 그에 대한 대답을 백두산정신에서 찾고싶다.

겨레의 넋이 어린 조종의 산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백두산을 사랑하고 숭상하여왔다.

순결하고 깨끗한것을 상징하는 흰색을 좋아한다고 하여 불리워온 백의민족도 사시장철 흰눈을 떠이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과 닮아있다.

불어치는 세찬 눈보라와 창공을 뚫고 치솟은 웅건한 봉우리들은 그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고 고난과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의 기질을 상징하는것으로 여겼다. 흥망성쇠의 다난한 길을 걸어온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를 돌이켜보면 조선이란 국호를 가진 단군조선으로부터 시작하여 고구려와 발해 등 우리 민족의 정통국가들은 모두 백두산을 포괄하는 령역에 나라를 건립하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찬란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면서 살아왔다. 이것만 봐도 백두산은 분명 우리 민족의 삶의 뿌리가 내려진 성산이다. 백두산장군봉밑의 천지기슭바위의 비석에 새겨진 《대태백 대택수 룡신비각》이라는 글만 보아도 백두산을 지키는 천지의 《룡신》이 조선사람들을 무궁토록 안정하게 살도록 해줄것을 바라는 민족의 기원이 담겨져있다.

1920년대 당시 백두산을 등산한 정평출신의 한 사람은 자기의 글에 이런 문구를 남겼다.

《백두산은 조선의 알파(α)와 오메가(ω)이다.》

여기서 알파(α)와 오메가(ω)는 사물현상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세계공용어인 그리스문자이다. 즉 그는 조선의 시작도 끝도 백두산에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서 《조선이 어데서 생겨나왔느냐. 백두산이 아니냐. 백두산은 조선이라는 나무의 뿌리이며 백두산은 조선이라는 형상의 거울이다. 조선을 위하려 함에도 백두산을 비롯하여야 하며 조선을 알려 함에도 백두산에 비추어보아야 한다. 천하의 명산이며 동방의 령지인 백두산은 이 나라 모든 산의 조종이며 근본이다.

아! 백두산, 백두산이야말로 조선일체의 집약적표현이며 조선최고의 전괄적가치이며 조선독특의 절대정신이다.》라고 하였다.

조선독특의 절대정신.

백두산이야말로 민족의 력사가 시작되고 민족의 넋과 정신이 깃든 성산임은 더 부언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백두산을 일제는 매우 두려워하였다. 하여 우리 민족의 넋과 정기를 꺾어놓으려고 이 나라 산줄기구분에서 조종의 산인 백두산이라는 말조차 없애버렸으며 조선지도에서 백두대산줄기를 동강내였다.

이것도 모자라 일제는 백두산에 쇠말뚝까지 박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백두산이 민족의 가슴에 더욱더 빛을 뿌리며 자리잡게 된것은 바로 그곳에서 나라를 다시 찾는 항일대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서부터이다. 망국의 세월 장수별 솟아오른 백두산은 희망의 령봉이였고 민족재생의 밝은 빛을 뿌리는 성산으로 겨레의 가슴마다에 새겨졌다.

백두산정신은 바로 이 조종의 산을 중심으로 **김일성**주석님께서 유격대를 이끄시고 항일대전을 벌리시던 나날에 창조된 정신인것으로 하여 참다운 민족정신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조국해방, 민족재생의 서광이 밝아온 백두산이 겨레의 성산이듯이 백두산악에 어려있는 조국해방의 정신을 대신할만 한 정신이 우리 겨레에게는 더는 없는 줄로 안다.

백 두 의 그 정 신 은

백두산정신에는 투철한 자주의 넋과 기개가 어리여있다.

삼천리에 식민지지배의 암운이 짙게 드리웠을 때 무장으로 항일대전을 선언하고 해방의 총소리를 높이 울린 백두산에 차넘치던것은 절대로 외세의 노예로 살수 없고 싸워서 기어이 나라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자주의 넋과 기개였다.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와 존엄은 생명과도 같다.

일찌기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였다.

19세기말—20세기초 조선봉건왕조의 비극적운명은 오늘도 깨우쳐주는바가 많다.

통치층이 사대주의에 매달려오다나니 국력은 나날이 쇠퇴해지고 나중에는 왕궁을 지킬 군대도 변변치 않아 이 나라, 저 나라 군대에게 궁궐파수를 맡겨야 했다. 그러다가 종당에는 제국주의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을사년의 비극을 맞아야 했다.

그때 힘없는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으면서도 외세에게 변변히 항거도 못했다. 눈물과 곡성으로 망국의 운명을 통탄해야만 했다.

《아! 통분토다, 아! 비분하도다! 노예된 우리 2천만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력사이래 수천년 민족정신이 하루밤사이에 멸망하여 끌장나고말겠느냐!》라던 《시일야방성대곡》의 눈물겨운 구절들은 오늘도 겨레의 가슴을 친다. 조선민족은 왜 남들처럼 굳세지 못하느냐던 망국시인의 처절한 울부짖음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던 우리 민족이 백두산에서 높이 울리는 항일의 총성을 들으며 자주의 정신, 독립의 정신을 더 투철히 자각하게 되였고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의 나날에는 도처에서 무장봉기로 조선인민혁명군의 노도와 같은 진격에 적극 화답할수 있었다.

백두산의 자주의 넋과 기개가 정치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 구현되여 공화국은 창건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자주의 한길을 걸어오고 자랑스러운 승리만을 력사에 아로새길수 있었다.

해방후 조선이 나아갈 길을 두고 여러가지 랑설이 나돌던 때에도 조선사람에게는 미국식옷도 쏘련식옷도 맞지 않으며 오직 조선식옷만이 맞다고 하시면서 해방조선이 나아갈 길은 민주주의적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길이라고 밝히신 주석님이시다. 세계 《최강》을 떠들던 미국을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은 혁혁한 전승의 신화도 주석님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조선식전법에 의하여 이룩된것이였다.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도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자기 실정에 맞게 하여왔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발돋음 한 북이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공화국이 승리의 한길을 줄기차게 걸어올수 있은 정신적힘은 백두에서 연길폭탄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일본군을 요정낸 그 정신과 기개가 살아숨쉬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에도 맥맥히 굽이치고있다.

자주의 넋과 슬기로운 기상이 어려있는 백두산정신은 우리 민족이 그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굴함이 없이 견결히 맞받아나가며 싸워 기어이 승리를 안아올수 있게 하는 완강한 공격정신이고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지난 4월 흰눈덮인 백두산정에 또다시 오르시여 초당 25m나 되는 세찬 칼바람을 맞받아 옷자락을 기폭처럼 날리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두산의 칼바람맛을 맛보아야 백두산의 진짜 맛을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고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라고, 이 정신을 안고살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조직지휘하신 영웅적인 항일대전의 빛나는 승리는 결코 수월하게 이루어진것이 아니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속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포악무도한 일제의 백만대군과 맞서 싸워야 했다. 그처럼 힘겨운 싸움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10여년간이나 무장항전을 벌려 조국해방의 아침을 안아온것은 백두의 그 정신이 있었기때문이다.

유격대원들은 모진 추위와 굶주림도 강인한 의지로 이겨내고 적들의 집요한 추격과 포위, 투항을 권고하는 갖은 회유에도 추호도 굴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백두의 그 억센 정신으로 싸워 마침내 해방의 환희를 안아올수 있었다.

자주의 억센 신념과 견결한 투쟁의지를 북돋아주는 백두산정신이야말로 민족의 참다운 정신이고 백두산은 민족정신의 고향이라 해야 할것이다.

외세가 70년간이나 지배하고있는 남조선에는 똑똑한 정신이라는것이 없다.

있다면 미국에 대한 환상과 굴종사상뿐이다. 미국에 얽매여 살면서도 그것을 숙명처럼 여기며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는 집권자들과 정객들을 보느라면 어제날의 리완용과 같은 쓸개빠진 매국노들을 보는것같아 역겨움을 금할수 없다. 얼마전에 미국대사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감정의 분출로 응당한 징벌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을 포함하여 여당과 보수단체, 《정부》와 경찰이 총동원되여 《사죄》요, 《석고대죄》요 하면서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비굴한 행위들을 줄줄이 연출하여 세인의 조소거리로 되는것을 보면서 해외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은 어쩌다가 남조선이 저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고 저마다 탄식과 울분을 터뜨렸었다.

자기의 것으로 삼을만 한 똑똑한 정신이 없다나니 그 사회에서는 《세월》호침몰이니, 《성완종사건》이니 하는 갖은 비극과 부패행위들이 련이어 발생하여 사람들을 아연케하고있다.

민족의 정신은 백두의 넋을 이어 빛나는 북에 있다고 나는 당당히 말하고싶다. 그것이 남녘겨레를 포함하여 온 겨레가 지녀야 할 위대한 정신이라는것을 더불어 말하고싶다.

통일은 백두의 정신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은 하늘에 닿았지만 분렬의 어둠은 70년이 되는 오늘도 가셔지지 않고 겨레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을 주고있다.

민족이 살고 겨레의 희망찬 래일이 있는 통일의 앞길에는 여전히 커다란 시련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외세인 미국은 오늘도 우리 겨레가 하나로 되는것을 가로막으려고 별의별 방해책동을 다 일삼고있다. 조국해방 70년, 민족분렬 70년이 되는 이해에도 전쟁연습의 총포성을 크게 울리며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전쟁연습의 불구름으로 뒤덮은 미국이다. 미국에 추종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반통일매국세력의 책동또한 만만치 않다.

이런 속에서 우리 겨레가 통일의 종착점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자면 신념을 주고 의지를 주며 용기를 주는 정신적지주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백두산정신이다.

백두의 넋과 슬기를 체현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오래전에 백두산에 오르시여 앞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면 많은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을것이라고, 그러나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싸워나가야 한다고,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1990년대 중엽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광풍이 어지럽게 불어치고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장군님께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잘살겠다는 생각보다 조국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앞세워야 하며 모든것을 조국통일에 지향시켜야 한다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수행할 비장한 결심으로 모진 고난과 시련도 뚫고나가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백두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면 통일이 온다는것을 우리 겨레는 6.15시대의 격동적인 나날들에 가슴뿌듯이 절감했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비롯한 항일의 전구들을 돌아보고 백두산에도 함께 올라 백두의 넋을 가슴에 새겨가던 잊을수 없는 그 나날들에 삼천리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거대한 통일열풍이 세차게 몰아쳤다. 남조선에서는 반미자주화의 열풍이 몰아쳐 침략과 지배의 상징인 미국대사관이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의 거대한 초불바다에 포위되여 미국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사변도 일어났다.

오늘 통일에로 가는 우리 민족의 진두에는 백두산칼바람을 즐겨맞으시는 또 한분의 백두령장이시며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그분께서는 올해에도 우리 민족의 통일앞길을 가로막고 전쟁불구름을 몰아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엄중한 도전에 대처하여 선군의 기치높이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정력적인 지도를 하시면서 백두산악과 같은 그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가 원하고 택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해줄수 있으며 상용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 되여있다는 폭탄같은 선언도 하시여 침략자들을 혼비백산케 하시였다.

절세의 위인이 계시고 백두의 정신이 우리 겨레를 거족적인 통일운동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기에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지금 북에서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에게 수백수천개의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백두의 정신을 안겨주시려고 령도자가 칼바람을 헤치시며 오르신 그 백두산으로 저마다 찾아가는 열풍이 일고있다. 북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도 저마다 백두산을 찾고있다. 《가리라 백두산으로》라는 노래를 부르며 머지않아 온 겨레가 백두산으로 달려갈것이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 그것은 령도자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가는 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리혜안의 예지가 빛발치고 담력과 웅지가 비껴있는 그 길에 강성국가도, 겨레가 바라는 통일도 있다.

이 글을 맺으면서 나는 심장의 박동을 모아 우리 겨레에게 이렇게 웨치고싶다.

영원히 백두산정신을 안고 백두산정신으로 승리를 떨쳐가자고.

재중동포 김 영 춘

인민을 위한 명당자리

장대재우에 솟아있는 평양학생소년궁전

평양의 중심부에는 북쪽의 만수대와 서로 잇닿아있는 나지막한 장대재언덕이 있다. 봄이면 언덕이 꽃속에 묻히여 마치 한송이의 거대한 꽃송이가 활짝 피여오른것처럼 아름답게 보이고 여름이면 한껏 아지를 펼친 푸른 잎새에서 새들의 지저귐소리가 울리는 장대재언덕은 평양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오는 명당자리이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궁전이 우뚝 솟아있다. 방과후 학생소년들에 대한 교육교양을 맡아하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이다.

새 세대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후대들을 위한 일에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고 돌려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옛날에는 왕이 궁전을 차지하였지만 해방된 우리 나라에서는 귀여운 후대들이 궁전을 차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훌륭한 아동궁전을 평양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장대재우에 세우도록 하시였다. 나라의 사정이 어려웠던 전후시기에는 해방후 완공하지 못한데다 미군의 야수적폭격으로 무참히 파괴된 아동궁전을 그 자리에 이전보다 몇배나 더 큰 오늘의 평양학생소년궁전으로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지금도 불빛찬란한 궁전에서 아이들의 랑랑한 노래소리가 울려나올 때면 내가 오늘 어린이방송을 들었는데 아이들이 《높고 아름다운 궁전을 수상님이 지어주신다네…》하고 노래를 부르지 않겠소, 내 오늘 어린이들의 노래를 들으며 생각하니 우리가 큰 빚을 지고있는것 같소, 우리 빨리 학생소년궁전을 지어줍시다라고 하시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후대들을 위해서, 꽃봉오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가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있다.

그이께서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이 문을 연 그날에는 몸소 궁전을 찾으시여 평생소원이 풀리신듯 만면에 환한 미소를 띄우시고 우리도 지금 궁전소조에 들 나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훌륭한 궁전이 세워졌으니 후대들을 잘 가르치라고 거듭거듭 당부하시였다.

세상에는 자기의 력사와 전통, 자태를 자랑하는 궁전들이 명당마다 자리잡고있다.

베르사이유궁전, 알 함부라궁전, 버킹엄궁전, 아우구스투스황제궁전 등 대다수의 궁전들은 근로하는 인민이 아니라 특권층이나 집권자들을 위한 궁전으로, 호화와 사치의 대명사로 되고있다.

하지만 평양학생소년궁전은 명실공히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층 근로자 자녀들의 재능의 싹을 찾아 틔워주고 아름답게 꽃피워주는 지덕체교양의 종합적학교, 훌륭한 아이들의 궁전이다.

연건평이 5만㎡에 달하는 궁전은 주체52(1963)년 9월에 세워진 때로부터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과학 및 예술신동들을 키워낸것으로 하여 그 이름이 높다.

각종 연구실과 활동실이 200여개가 있고 극장과 체육관, 야외실습장, 도서관을 비롯하여 모든 과외실습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어 하루에 1만여명의 학생소년들이 찾아와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하기에 그곳을 돌아본 외국인들은 경치가 아름다운 평양의 한복판 명당자리에 아이들을 위한 궁전을 세운다는것은 정말 꿈같은 현실이라고 하면서 조선은 명실공히 아이들이 왕으로 되고있는 세상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많은 나라들에서 그칠새 없는 분쟁과 전쟁으로 하여 어린이들이 무참히 파괴된 페허속에서 정처없이 방황하고 사회적학대와 멸시속에 고통을 당하며 시들고 병들고 있을때 공화국에서는 아이들이 명당자리에 일떠선 훌륭한 궁전에서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세상에 부럼없어라》라는 행복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평양학생소년궁전

숭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치며

20분간의 강의

주체102(2013)년 11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찾으셨을 때였다.

그이께서 미술실기실에 들어서시였을 때 학생들이 한창 그림을 그리고있었다.

그들의 수업을 지켜보신 그이께서는 문득 인물속사하는데 몇분 걸리는가고 물으시였다. 5분간이면 된다는 한 학생의 말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러면 한 10분정도 기다릴테니 여기 온 일군들을 선택해서 인물속사를 한번 해보라고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치도 수업종소리와 함께 교실에 들어선 스승의 다정하고 친근한 눈빛으로 학생들을 바라보시며 환히 웃고계시였고 미술실기실에는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의 연필소리만이 조용히 울리였다.

어느덧 10분간이 흘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직 미완성인 학생들의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서 속사를 하는것을 보니 방법이 다 다르다고 하시고 머리를 먼저 그리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몸을 먼저 그리는 학생도 있다고, 앞에 앉은 두 학생이 속사한 그림들을 보니 하나는 비례가 비슷하고 다른 하나는 자세가 비슷하다고 우단점을 세세히 지적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은 소묘대상이 된 일군과 학생들이 속사한 그림을 번갈아보며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대학에서 만든 건축형성설계작품집을 보시고 건축가가 갖추어야 할 창조적인 안목과 공간표상능력, 감각과 미감에 대하여 명백하고 통속적으로 가르쳐주신 그이께서는 학생들이 그린 몇장의 그림을 놓고도 대상의 본질적인 특징만을 집약적으로 빠른 시간에 그려내야 하는 미술실기실천의 요구와 방도에 대해 명료하게 일깨워주시였다.

준비된 강의안도 없는 강의였다. 그러나 단 20분간에 학생들을 매혹시키고 교원들을 감동케한 강의였다.

본사기자

유화 《소사하의 가을》에 비낀 동포의 마음

인생길은 천갈래, 만갈래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는것처럼 더구나 지경 넘어 피줄이 다른 타향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몇갑절 더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민족의 넋을 잃으면 키없는 배나 기수없는 말과 같은 불우한 운명을 면할수 없게 된다는것은 력사의 철리이다.

민족의 일원이라는 순결무구한 애착과 민족의 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운 사람에게는 생의 자욱이 남는 곧고 넓은 길이 있다는것을 조국의 최북단 라선땅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김미자동포의 생활이 보여주고있다.

두만강건너 중국동북지방에 태를 묻은 그에게 있어서 소사하는 어릴적부터 선친들의 손목에 이끌려 자주 다녀온 잊을수 없는 고장이다. 세월이 흐르고 철이 들면서는 김일성주석의 영용한 반일투쟁사적과 업적이 깃들어있는 뜻깊은 곳이라는것을 뇌리에 새기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두터운 갈피에서 《소사하의 가을》을 열독하면서는 그 감동이 더 깊어졌다. 남만의 길에서 돌아오신 수령님께서 강반석어머님을 위해 약꾸레미를 가지고오신 이야기, 눈물범벅인 얼굴을 마구 비비며 달려와 안기며 몸부림치는 두 동생분, 좁쌀 한말과 어머님께서 하신 절절한 말씀…

눈물없이는 읽을수 없는 그 대목을 몇번 더 읽어본 그에게는 이름할수 없는 감흥과 내심이 굴뚝같이 차올랐다. 소사하의 가을을 화폭으로 형상해야겠다는 흥분이 굳어졌다. 고패치는 생각은 연줄연줄 가지를 치면서 수령님께서 건느신 외나무다리며 아드님의 발걸음소리를 가려들으시고 토방문을 여신 강반석녀사 그리고 어머님을 도와 땔나무가 바닥날세라 산에 오르던 두 동생분의 지극한 마음도 담아야 한다는데 이르렀다. 하나의 작품에 형태적인 표상은 담지 못한다 해도 조선의 자주독립투쟁이 걸어온 길에 맥맥히 굽이친 넋과 숨결이 반영되여야 했다.

그는 이름난 화가와 함께 소사하땅을 편답도 하고 작품의 구성형상을 놓고 선친들과 밤을 새우며 진지한 의논도 나누었다. 마침내 유화 《소사하의 가을》이 창작완성되였고 김미자동포는 김일성주석께 이 작품을 삼가 올렸다. 어느날 그의 지성어린 선물을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림을 생동하게 잘 그렸다고 하시면서 화폭에 깃든 그의 진정을 헤아려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김미자동포는 라선땅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조국의 부강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미력하게나마 기여했다.

그는 이렇게 피력했다.

내가 조국을 위해 다소나마 일할수 있은것은 마음속에 《소사하의 가을》을 안고사는 넋이 있기때문이다. 언제나 조선민족의 일원이라는것을 잊지 않고 절세위인들의 평생의 위업과 유훈이 어린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조국인민들과 발걸음을 함께 할것이라는것이 나의 변함없는 마음이다.

본사기자 리 설

화창한 계절과 더불어 한껏 수려해지는 평양의 모습

한 외국정객의 감복

지금으로부터 열여섯해전 2월이였다.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백두산지구에서 조선을 방문한 로씨야 평화 및 통일당 당수를 만나시였다. 담화석상에서는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조선의 형편과 세계정치정세문제, 로씨야정당들의 활동과 관련한 문제 등을 가지고 진지한 담화가 진행되였다.

담화가 끝난 후 장군님께서 백두설경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손님과 함께 야외에 나오셨을 때였다.

백두대지에는 은백색 눈가루가 앙칼진 소리를 내며 휘몰아치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그에게 여기에서는 이쯤한 추위는 보통이여서 자신께서는 괜찮은데 처음 오는 손님들은 추울수 있다고, 춥다고 몸을 움츠리면 추위가 더 기승을 부린다고, 이래서 백두산을 의지의 시험장이라고 한다시며 호방하게 웃으시였다. 살을 에이는 맵짠 칼바람에도 개의치 않으시는 그이의 기품은 헌헌하였다.

이에 감복한 손님은 상봉후 이렇게 터놓았다.

김정일장군은 탁월한 정치가,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하늘이 낸 위인이시다. 그분은 기상과 신념도, 의지와 배짱도 꼭 백두산을 닮으셨다.

본사기자

소나무는 내 조국의 억센 기상입니다

소나무가 조선의 국수로 지정되였다는 소식을 들으니 민족적긍지로 가슴이 부풀어오름을 금할수 없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조국을 생각할 때면 항용 소나무를 떠올리군 한다.

평양방문기념으로 가져온 소나무족자 그림을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며 어머니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아보는 우리들이다.

한겨울에도 무성한 잎새우에 흰눈을 떠이고 언제나 푸르러 설레이는 소나무를 바라볼 때면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휘몰아쳐도 불패의 성새로 끄떡없이 솟아 빛나는 내 조국의 장한 모습이 안겨온다.

세상에 대고 우리 민족의 넋과 기상의 상징인 소나무에 대해 한껏 자랑하고싶다.

* *

소나무는 오랜 세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겨레와 운명을 함께 하여왔다.

신생대시기부터 지구상에 나타나 6 000년전부터 우리 나라에서 자랐으며 3 000년전부터는 많은 지역에 널리 퍼졌다는 소나무는 우리의 기후풍토에 잘 적응된 탓에 압록강, 두만강 기슭으로부터 남해의 여러 섬들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분포되여있다.

우리 나라의 산림가운데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있어 어원적으로도 나무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말로 《수리》라고 불리웠으며 점차 《술》로 다음은 《솔》로 변화되였다.

소나무는 민족의 첫 국가인 고조선이나 동방의 천년강국 고구려의 창업, 첫 통일국가인 고려건국사의 갈피에도 그 이름이 새겨져있다.

그 시조들의 릉이나 건국공신들의 무덤들도 대개가 소나무숲 우거진 명당자리들에 있다.

한송정, 송림, 송천, 솔섬, 송악산, 송광사, 송도, 송도원 등 소나무와 련결되여 불리워지는 지명과 명산, 명승지, 사원들도 적지 않다.

소나무는 우리 겨레의 생활과도 깊은 인연을 맺어왔으니 울창한 숲은 용재원천이면서도 토지보호와 위생풍치, 바람막이 등에 효과적이였다. 나무들은 재목과 가구, 도구감으로 널리 쓰이였으니 궁성들과 대궐들, 사찰들과 전각, 집들에 리용되지 않는 곳이 없었다.

민속명절음식들과 식생활에도 빠지지 않아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철과 추석이면 의례히 상에 오르는것이 햇곡식과 솔잎으로 찐 떡송편이요, 별미로 인기를 끈것은 송이버섯료리였다.

소나무는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의 효능높은 약재로도 이름이 높았다. 소나무꽃가루를 비롯한 약재들은 온갖 병에 특효가 있고 솔잎차는 피로를 풀고 병을 막는 저항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십장생그림에도 빠지지 않은것을 보면 소나무가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졌음을 잘 알게 한다.

소나무는 시와 노래며 그림에도 많이 올랐다.

그 력사적, 문화적가치로 하여 우리 민족과 세계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해주는 고구려 고분벽화들에는 소나무가 많이 그려져있다. 진파리 1호무덤의 북쪽벽에 그려진 소나무는 화법이 독특하고 우수한것으로 높이 평가되고있다.

정선과 김홍도를 비롯한 유명화가들이 그린 우리 나라의 사계절과 금강산을 비롯한 명산명승들, 폭포와 계곡, 기암절벽들, 바다가와 산천, 마을, 사원 등에 대한 그림들중 소나무가 등장하지 않는것이 없다.

6세기 후반기 7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유명한 화가 솔거가 황룡사의 벽면에 그린 소나무는 너무도 생동하여 날아가던 새들이 그것이 진짜 소나무인줄 알고 앉으려다가 벽에 부딪쳐서 떨어졌다는 일화까지 남겼다.

특히 소나무는 《충의》와 《절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불의한 권력에 의해 죽음을 당하면서도 충절의 뜻을 버리지 않은 사육신의 한사람인 성삼문이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락락장송 되였다가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는 시로 하여 더 유명해지고 왜적을 반대하는 싸움에 한몸을 바친 계월향이나 론개 그리고 참된 사랑을 짓밟는 불평등한 신분제도와 량반들의 불의한 횡포에 굴하지 않은 춘향같은 녀인들의 절개도 송죽에 비유된것은 그러한 사례들이다.

이렇듯 오랜 력사속에서 겨레와 뗄수 없는 인연을 맺어오면서 민족의 기상과 슬기, 순결성의 상징으로 되여온 소나무는 평양의 만경대가문과 더불어 애국자들의 변함없는 신념, 조선의 억센 기상을 상징하는 나무로 되였다.

나는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만경대를 찾군 한다.

소나무숲 우거진 만경봉아래 자리잡은 소박한 고향집을 돌아볼 때마다 만경대일가분들의 고결한 애국적삶과 그분들께서 지니셨던 원대한 뜻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특히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되새겨볼수록 그 심원한 세계에 깊이 심취되게 된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피롬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

나라가 일제에게 짓밟혀 암울하기만 했던 때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이 시에는 눈서리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어떤 역경과 난관속에서도 한번 지닌 뜻을 버리지 않을 애국의 기개와 기상이 맥맥히 굽이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그 시에 담겨진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시고 장장 20성상 눈보라혈전만리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아버님의 념원대로 삼천리조선에 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려퍼지게 해주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주석님께서 만경대의 소나무시에 남기신 아버님의 뜻대로 일제의 학정으로 얼어붙었던 이 땅에 화창한 양춘을 안아오시여 조선은 새 나라 건국대업의 닻을 올리고 침략전쟁을 도발한 미제를 력사상 처음으로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넣는 승전신화를 창조했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부상될수 있었던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원》의 높은 뜻 어린 소나무를 언제나 마음속에 안으시고 성스런 조국수호와 부강번영을 위한 선군혁명의 길을 강의한 신념과 의지로 헤쳐오시였다.

언제인가 조국을 방문하여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준엄했던 지난 세기 50년대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미제의 야만적 폭격이 그칠새 없던 때 그분께서는 모란봉의 소나무는 꿋꿋이 살아있다고, 미국놈들은 그 어떤 폭탄으로도 우리 조국을 절대로 불태울수 없다고 하시면서 모란봉은 불타지 않았다는 확신을 일기장에 쓰셨다고 한다.

10대에 벌써 그 어떤 모진 광풍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를 조국의 기상과 련결시켜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기에 사회주의조선의 억센 모습을 소나무에 비유하여 잘 형상한 《너를 보며 생각하네》와 같은 노래를 더없이 사랑하시고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실 첫 걸음도 새해 첫 아침 눈덮인 다박솔초소에서 떼시면서 공화국을 그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불패의 선군강국으로 일떠세우신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소나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부동의 신념과 의지,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로동당시대 조선의 상징으로 그 푸르름을 더욱 과시하고있다.

조국에서 들은데 의하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더없이 사랑하신다고 한다.

언제인가 그분께서는 남산을 바라보면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시부터 생각난다고, 그 시에서 제일 가슴을 울리는것은 3련이라고 하시며 조용히 시를 읊으시였다고 한다. 그리고 구절구절 되새겨볼수록 김형직선생님의 불굴의 의지와 신념이 가슴뜨겁게 어려온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는것이다.

만경대가문이 소나무에 새겨놓으신 뜻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였기에 그분께서는 선대분들이 그토록 그려보시던 최후승리의 날을 앞당기시기 위해 신념의 길을 꿋꿋이 이어가고계신다는것이다.

지금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발따라 부강조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온갖 시련과 고난을 박차고 도도히 전진하며 빛나는 승리의 전통만을 기록해가는 내 조국을 보면 태양의 자양속에 무성한 잎새와 푸르름을 무궁토록 뽐내는 소나무의 기상과 신통히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로부터 소나무는 엄동설한이 되여야 그 절개를 알수 있다고 했다.

어려울 때 진가가 나타난다는 이 철리를 가장 생생한 현실로 만인앞에 증명하고있는것이 바로 북이다.

돌아보면 북이 지난 70년간, 특히 최근 수년간 다시금 겪은 난관과 고초는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또다시 대국상을 당한 북에 대한 내외적대세력들의 공세는 극에 이르렀다.

북의 정상적인 3차핵시험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발사를 걸고 자행된 미제를 위시한 서방의 압살과 유엔까지 발동한 제재책동, 끊임없이 작성공표된 북침작전계획들, 미국의 3대핵타격수단들이 총동원되여 감행된 합동군사연습들, 온갖 비렬한 수법을 다 적용하며 집요하게 추구한 인권모략소동…

해외에서 보았을 때 그 모든것은 지난 1990년대 중반과 다를바 없는 또 하나의 역경이였다.

하지만 북은 이전처럼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겨울이나 여름이나 푸르름만을 견지하는 소나무처럼 자기의 본모습을 순간도 흐트리지 않았다.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에도 끄덕하지 않고 단호한 대응으로 쉼없이 쏟아지는 《압살의 눈보라》를 날려버리고 무자비한 공격으로 두텁게 엉켜붙은 《도발의 얼음덩이》를 녹여버리고있다.

얼마전 미국에 왔던 한 남조선의 군사문제관계자를 만난적이 있다.

그는 이번에 남쪽에서는 근 두달에 걸쳐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였지만 거의나 보도된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무엇때문에 미국은 소문을 요란하게 내며 훈련강행을 선포했고 병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서도 연습진행상황은 될수록 은폐하였는가.

한마디로 **김정은**최고사령관을 모신 북의 단호한 대응앞에 넋을 잃었기때문이였다.

북수뇌부를 자극하지 말라, 이것이 이번 연습과 관련하여 미국방성에서 내려진 훈령이였다.

확실히 지금 미국은 북을 두려워하고있다.

…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실제상 세계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만 조선반도에서만은 미국이 북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전개되고있다.

20세기에 시작된 미국패배, 조선승리의 전통이 변함없이 계승되고있는것이 21세기의 현실이다.

미국의 오바마까지도 힘으로 북을 어째보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음을 공식인정했다.

전문가들은 그를 두고 아이젠하워는 1950년대 3년간의 전쟁에서 굴복도장을 찍었다면 오바마는 70년에 걸친 조미대결에서 완전패배를 선언하였다고 평하였다.

그때에도 나는 층암절벽에도 뿌리를 내리고 바위우에도 거연히 솟아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산하를 굽어보는 소나무를 그려보았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웨쳤다.

자랑스럽도다, 내 조국이여!

지난 70년간 당한 남조선의 수치도 말끔히 털어주고 강권의 전횡에 짓밟힌 나라들의 치욕도 모조리 가셔주는 내 조국에 감사하는 마음 무엇으로 다 표현하랴. 북이 굳건함을 과시하고 위세떨치니 우리 해외동포들도 기세충천하여 미국땅 한복판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난 3월 우리 재미동포들은 오바마에게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북침전쟁연습의 중지, 조선과의 평화협정체결, 외교관계수립 등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의 가증되는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화국이 마련한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핵타격수단들이 미국본토까지도 무서운 불도가니속에 처넣게 될것이라고 경고하는 공개편지를 미국의 《뉴욕 타임스》에 실었다.

이전같으면 생각도 할수 없는 용기있는 행동을 하게 된 사실을 두고 많은 해외동포들은 천출위인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 우리 뒤에는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는 공화국이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였다고 하나같이 말하였다.

하늘이 준 본성을 지켜 백목의 왕이 된 소나무처럼 선군의 위력으로 세계정치의 중심, 반제자주의 성새로 우뚝 솟아 백승떨치는 공화국의 위상에서 받아안는 우리 해외동포들의 긍지와 자부는 필설로는 다 옮길수가 없다.

참으로 북과 소나무는 모든 면에서 신통히 잘 어울린다.

소나무가 조선의 상징, 공화국의 국수로 된것은 너무도 응당하며 그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의 반영으로도 된다.

그런데 최근 남조선에서도 소나무를 무슨 《국목》으로 지정하려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소나무가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나날이 쇠퇴해지고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소나무기피증》까지 만연되고있다.

몇년전에는 수백년 묵은 로송으로 지은 력사의 증견물의 하나인 《숭례문》을 불에 태워 재가루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그를 복원할 적당한 년령대의 소나무를 남조선에서는 찾을수가 없어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실로 망신스럽고 개탄할 일이다.

더우기 남조선당국이 지금 얼마나 비굴하고 추악한 종미종일사대매국행위를 일삼는가는 세상이 다 알고있다.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다 저버리고 오직 외세의 눈치만을 보고 외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추태를 다 부려대며 외세가 하라는대로만 움직이면서 민족의 얼굴에 흙칠을 해대고 있어 해외동포들이 조선사람으로서 얼굴을 들고다니지 못할 정도이다.

이렇듯 미국의 속국으로 된 식민지, 외세에 매인 가련한 주구인 신세에 자주정신의 상징인 소나무를 감히 《국목》으로 지정하겠다니 그것은 민족에 대한 우롱인 동시에 소나무에 대한 모독이다.

국수에는 해당 민족의 넋과 정신이 비끼고 그 사회의 참모습이 담겨져야 하는 법이다.

그러니 소나무는 오직 민족의 존엄이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고 사회주의기상과 기개가 높이 떨쳐지며 7천만겨레의 가슴속에 태양조국으로 간직된 자주의 강국, 신념의 강국인 공화국의 국수로만 될수 있다.

그것은 우리 해외동포들 아니 온 민족의 한결같은 확신이다.

* *

태양의 자양이 없이 소나무의 생존과 푸르름을 바랄수 없듯이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빛발을 떠나 공화국의 오늘과 래일, 민족의 앞날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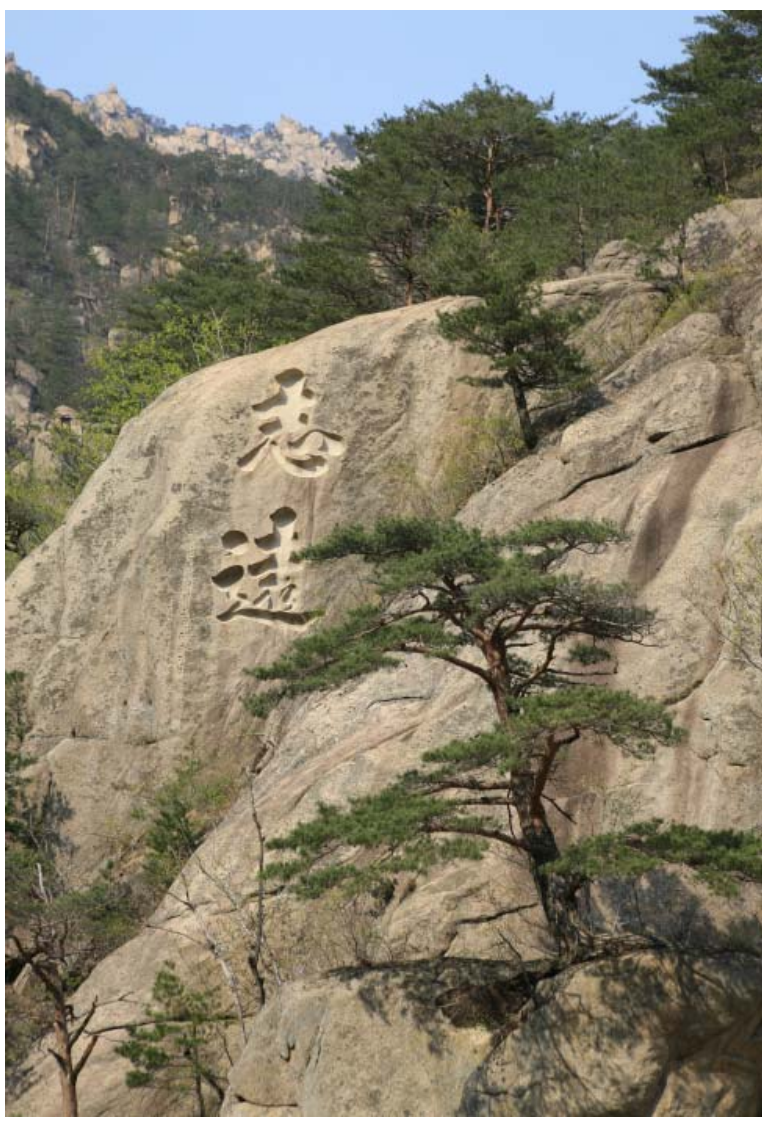
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함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태양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조국이다.

태양의 빛을 받아 푸르고 조선의 국수로 빛나는 소나무여!

그 도고한 기상과 변함없는 절개, 장대한 기품으로 민족의 기상떨치는 조선의 장한 모습을 만방에 전해가라!

대를 이어 태양을 모신 영광속에 무궁번영할 내 조국, 내 민족과 더불어 영원토록 푸르러 설레이라!

재미동포 정송화



금 강 산 의 소 나 무

◎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조선의 키중한것 (4) ◎

사랑과 정이 넘치는 사회

지금 세계에는 황금만능의 사상과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사이의 관계도 너 아니면 나라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인간사회의 미덕인 사랑과 정은 메말라가고있다.

《자유》와 《인권》을 그토록 설교하는 미국에서도 피부색이 검다는 한가지 리유로 하여 백인경찰들이 흑인들을 총으로 마구 쏴죽이는 끔찍한 참변들이 련이어 빚어지고있다.

자본주의남조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조선민족은 류달리 정이 많은 민족이다. 정에 살고 정에 울고웃는 다정다감하고 인정이 많은 민족이여서 나그네가 하루밤 묵어가자고 해도 따뜻이 반겨맞아들이고 옆집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온 마을이 떨쳐나서 서로 도와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늙은이들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색갈도 냄새도 안 나는데 들면 화끈해지고 그것이 나오면 오싹해지며 그것이 부풀면 사족을 못 쓰고 그것이 닳으면 사지가 풀리며 그것이 붙으면 엿처럼 끈적이고 그것이 떨어지면 세상이 캄캄하니 정말 묘한것이네》라는 《정타령》을 즐겨부르군 하였다. 19세기 조선에 와있던 프랑스 선교사들도 이에 감복하여 로마교황청에 보낸 보고서에서 《조선사람은 정으로 뭉치면 로마병사보다 더 강하다.》고 토로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에서는 조상전래의 미풍량속이 점점 사라져가고 돈을 위해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며 학생이 스승을 구타하는것과 같은 옛날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있다. 지난해에는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히 여겨 수백명의 아이들을 한 순간에 바다에 수장시키고 똑똑한 구조대책 하나 취하지 않아 단 한명도 살려내지 못하는 비극적인 《세월》호참사도 발생하여 내외를 경악케 하였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세계의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서는 볼수 없는 특이한 풍경이 펼쳐지고있다. 그것이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 땅에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갈피속에 깊숙이 자리잡은지가 오래다.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라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나온것도 지난 세기 60년대이다.

앞 못 보는 청년에게 광명을 안겨주려고 자기 안해의 눈에 수술칼을 댄 안과의사도 조선에 있고 물에 빠진 자기 자식보다 남의 집아이들을 먼저 건져주고 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 친자식처럼 키워주는가 하면 녀의사가 화상으로 얼굴이 흉칙하게 이그러진 로동자 처녀에게 아름다움을 되찾아주기 위해 8년간 무려 100여차례의 크고작은 수술을 한 감동깊은 이야기도 조선에서만 들을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다. 조국보위의 초소에 섰다가 뜻밖의 사고로 불구의 몸이 된 영예군인들을 위해 처녀들이 한생의 길동무가 된 사실들은 너무도 흔한 일로 되였다.

하기에 언제인가 공화국을 방문했던 한 해외동포언론인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마치도 사람의 생명도 구원해내는 저 진귀한 약초를 캐내기 위해 배낭을 메고 심산유곡을 헤매는 사람처럼 그 땅에서의 미담들을 채집하여 하나씩둘씩 나의 배낭을 채워가려 했다. 한데 이것이 웬일인가. 저 깊은 숲속 혹은 들판에 희귀하게 하나씩둘씩 숨어있어야 할 미담의 꽃송이들이 그 나라 들판에는 마치도 번식력이 강한 풀들인양 온 천지를 뒤덮듯 무수히 피여나있지를 않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피여난 꽃송이들은 저마다 갖가지 모양, 갖가지 빛갈을 띠고 저마다 그윽한 향기를 발하고있었다.》

공화국이야말로 어딜 가나 사랑이 넘치는 나라, 《예수》가 왔다가도 할 일이 없는 말그대로 사랑의 공동체이다.

사랑과 정에 끌리고 사랑과 정에 묻혀 사는 행복,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수 있는 진정한 행복일것이다.

사랑과 정은 인류가 갈구하는 삶의 가치이며 인간생활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제이다. 행성에 범람하는 무수한 영화들, 거기에 사랑을 취급하지 않은 영화는 거의나 없다. 그것이 없다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영화의 흥행이 되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 실재하는 사람들사이의 사랑관계는 련인이나 가정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있는것이 행성의 보편적인 실태이다.

이에 비해 공화국은 사랑과 정이 련인들과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 온 사회에 일반화되여있다. 령도자와 인민의 관계도 사랑과 정으로 흐르고 군대와 인민의 관계도 따뜻한 혈육의 관계이며 사회에서 사람들사이에 일상적으로 오고가는것도 사랑과 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화국의 인민들은 비록 번쩍거리며 살지는 못해도 정신적재부가 많은 세상에서 사는 가장 행복한 인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 이것은 공화국이 인간의 본태가 살아숨쉬는 참으로 인간다운 사회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회라는것을 뜻한다. 인권의 꽃이 한두곳에서만 아니라 온 나라에 만발하는 인간존중의 리상사회, 인민중심의 사회주의라는것을 웅변해주는것이기도 하다.

인간세상에서 사랑과 정으로 뭉친 힘보다 강한것은 없다.

어느 한 철학자는 《사랑이 인간사회에서 최고의 힘이고 무기》라고 하였다. 력사가들도 《인간사회나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것은 사랑》이라고 하였다. 《사랑은 검을 이긴다.》는것은 세계가 다 아는 격언이다.

공화국이 세계에서 강국의 위력을 높이 떨치고있는것은 비단 강위력한 핵억제력때문만이 아니다. 그보다 더 강한 무기는 사랑의 무기이다. 조선에는 남에게는 없는 사랑의 절대보검이 있다. 그것으로 일심단결을 이루고 적대세력의 붕괴압살전략도 풍지박산으로 만들며 사랑과 믿음의 힘으로 강성국가의 령마루에로 치달아오르고있는 공화국이다.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전의 최후의 승리도 사랑과 정의의 보검을 틀어쥔 조선에 있다. 얼마전에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적과의 싸움은 결코 무장장비의 대결, 물리적힘의 대결만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력, 사상의 대결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그렇다. 사랑은 검을 이긴다.

본사기자 김 춘 경

화상입은 처녀 림송미(오른쪽에서 네번째)의 얼굴을 8년동안 치료하여 완쾌시킨 조선적십자종합병원 과장 림현단(오른쪽에서 세번째)

55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평안북도 구장군의 최명화, 류옥희부부

단상 결혼식날에 심은 나무

예로부터 전해지고있는 고전소설《흥부전》에는 부부가 행복의 박을 켜는 장면이 있다. 근면함과 소박함을 지닌 우리 겨레의 모습을 반영한 소설의 주인공들인가 요즘 거리의 곳곳에서는 결혼을 기념하여 식수를 하는 신랑, 신부들의 모습을 많이 볼수 있다.

우리가 태여나고 자라난 이 땅에 행복의 씨앗을 뿌리듯 정성들여 나무를 심는 신랑, 신부들을 보며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시선을 떼지 못한다.

가벼운 봄바람에도 흔들릴가보아 정히 나무를 잡고있는 신부며 뿌리 하나라도 상할세라 정성들여 흙을 덮는 신랑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싶어 다가가는 우리의 귀전에 다정히 건네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부식토와 물을 충분히 주었으니 잘 자랄 거요.》

《우리들의 진정을 묻었으니 빨리 자라겠지요.》

살뜰히 건네는 신부의 말에 우리는 한그루 나무에도 애국의 마음을 묻어가는 그들의 진정을 엿볼수 있었다.

더우기 우리의 감동을 자아낸것은 그들이 심는 나무결에서 이미 새 싹을 펼친 나무들에 씌여진 패쪽들이였다.

《주체104(2015)년 4월 3일 결혼을 기념하여

신랑 김정혁 신부 리옥주》

비록 애어린 나무들이지만 무수히 자라는 나무들. 이들처럼 정성을 다해 나무를 심었을 이 나라의 수많은 신혼부부들.

이 나라의 무수한 가정들의 첫걸음은 이렇게 애국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애국자가정이 류다르게 많은 공화국이다. 김정일애국주의가 모두의 가슴속에 높뛰고있어 공화국은 강하고 미래도 창창하다.

지금 공화국에서 전국적규모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산림복구전투는 령도자의 구상을 받들어 온 나라의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고 민족의 재부를 끝없이 늘여나가기 위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이로 인해 더욱 무성해질 애국의 숲들과 더불어 부강번영의 밝은 미래도 앞당겨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강 류 성

해외동포들의 애국지성이 깃든 공장

공화국에는 해외동포상공인들의 애국적소행을 전하는 공장들과 건물들이 적지 않다. 애국편직물공장, 동대원애국편직물공장, 경련애국사이다공장, 만경대애국늄창공장, 김만유병원, 안상택거리…

이런 공장과 건물, 거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해외에 살면서도 조국을 언제나 잊지 않고 나라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려고 애쓰는 동포상공인들의 애국의 마음을 읽군 한다.

평양의 창광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애국편직물공장도 그런 공장들중의 하나이다.

공장은 1970년대초에 건설되였다. 당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맞으며 공화국에서는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었다. 바로 그때 재일본조선인총련맹(총련)의 일군들과 애국적상공인들도 나라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싶은 심정에서 여러가지 설비들과 적지 않은 자금을 기증하였다.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 설비들과 돈으로 말하면 그들이 일생을 바치다싶이 하면서 한푼두푼 어렵게 마련한것들이였다. 더우기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고 돈없으면 살수 없는 자본주의일본땅에서 자기들의 피땀으로 마련한 재부를 내놓는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들자신이 더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없던 시절 이역만리 일본땅에서 온갖 민족적천대와 멸시를 당하다가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이 된 동포들이였기에 많은 자금과 설비들을 서슴없이 조국을 위해 바칠수 있었던것이다.

이런 그들의 소행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하시고 내세워주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총련의 애국적상공인들이 선물로 보내온 편직설비들과 제직설비들을 기본으로 하여 공장을 건설하도록 발기하시고 몸소 창광산기슭에 공장의 터전까지 잡아주시였다. 그리고 공장을 총련의 특색이 살아나게 잘 짓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공장의 명칭도 《애국편직물공장》이라고 달도록 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풍치수려한 평양의 명당자리에 애국이라는 이름을 단 편직물공장이 번듯하게 일떠서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공장이 다 건설된 다음에는 여러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여 총련의 애국적상공인들의 지성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를 널리 소개선전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장건설과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오늘 공장은 갖가지 량면 및 외면편직제품들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애국편직물공장건설에 크게 공헌한 애국적상공인들도 이제는 없다. 하지만 그들이 발휘한 소행은 애국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사람들의 기억속에 길이 남아있다.

본사기자 박 철 남

특대형범죄행위에 매달리는 한…

최근 남조선에서는 북침을 노린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이 벌어진데 이어 반북대결적인 《인권》모략소동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하는 범죄행위들이 계속 로골적으로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얼마전에도 《채널A》라는 사이비언론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걸고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해대는 중상행위를 감행하여 공화국군민의 증오와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이러한 망동은 북남관계에서 도저히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천추만대를 두고 용납할수 없는 특대형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가장 신성한 민족의 최고존엄

공화국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사회발전을 추동해가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이다. 북에서 령도자의 지위는 단순히 국가수반의 개념만으로는 설명할수 없다.

공화국에서는 령도자를 가리켜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 최고뇌수라고 부른다. 뇌수가 없이는 사람의 활동도 있을수 없고 살수도 없는것처럼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는 북의 사회는 령도자를 떠나서 이야기할수 없다. 한마디로 령도자는 공화국의 최고존엄이고 생명이며 미래이다.

그 누구도 가질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을 지니고 지칠줄 모르는 사상리론활동과 실천활동을 벌리시며 나라와 민족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시는 공화국의 령도자를 군대와 인민이 열렬히 흠모하고 숭배하며 따르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 령도자는 곧 당이고 국가이고 자신들의 운명의 태양이다.

이러한 최고존엄을 우롱하는것은 북의 존재를 부정하는것이고 군대와 인민의 삶을 부정하고 미래를 부정하는것이다. 최고존엄 우롱행위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특대형범죄행위로 되는것은 이때문이다.

후안무치하고 위험천만한 망동

남조선보수세력의 최고존엄 우롱행위가 북남관계에 돌이킬수 없는 파국적영향을 주고있는것은 비단 오늘에 와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다.

력대적으로 그것은 북남관계에 엄중한 해독적후과를 끼쳐왔다.

지난 2011년에도 남조선보수당국은 전연부대들의 병영들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은 물론 주변도로의 안내간판들과 담장들에까지 극악무도한 구호들과 현수막들을 쓰고 내다걸었는가 하면 사격장들에서는 공화국기와 최고존엄을 표적으로 한 사격사건들을 감행하였다. 지어 온 민족의 가슴아픈 애도기간에 인천시에 주둔하고있는 남조선군부대의 내무반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천하무도한짓까지 벌어졌다. 또 2013년에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평양을 비롯한 공화국의 대도시들에 정중히 모신 수령영생, 수령칭송의 기념비들을 미싸일로 정밀타격할 몸서리치는 계획까지 짜놓았다는것이 공개되여 온 민족의 커다란 증오와 저주를 불러일으켰다.

보수당국에 의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감행되여온 이러한 특대형도발행위들로 인해 조선반도의 정세와 북남관계는 걷잡을수 없이 최대로 악화되였었다.

특대형도발이 감행될 때마다 북남사이의 모든 대화와 관계개선노력은 물거품으로 변하고 전연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열점지역들에서 자그마한 불꽃도 전면전으로 치달을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조성되군 하였다.

하기에 남조선의 정계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보수당국의 망동들을 두고 《모두의 가슴을 섬찍하게 만드는 분별없는 행위》, 《원색적인 동족대결음모》, 《전쟁을 회귀시키는 정신병자들의 처사》로 규탄단죄하여 왔으며 그로 인해 초래된 북남관계파탄에 대해 심히 우려하군 하였다.

북남관계가 최대로 악화되고 군사적긴장도가 가장 높은 조선반도에서 북의 최고존엄을 우롱하는 행위는 전쟁도화선에 불을 다는것과 같은 가장 위험천만한 짓이다.

북남관계에서 지켜야 할 최고의 도덕

남조선보수당국이 상대방에 대한 초보적인 례의도, 존중도 없이 《관계개선》과 《대화》에 대해 운운하는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파렴치한 행위이다.

북남대화나 관계개선이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기초로 하고있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그것이 없이는 대화나 관계개선이라는 말자체가 성립될수 없다.

북의 최고존엄에 대해서는 더우기 그러하다.

북에서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최고존엄을 계속 우롱하면서 어떻게 북과 마주앉아 대화를 하겠다고 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속에는 상대방을 해칠 대결의 칼을 계속 품고있는자들의 말을 그 누구도 곧이듣지 않을것이며 그런자들과는 오직 최후의 결산만을 치르겠다는것이 공화국의 원칙적이며 확고부동한 립장으로 되고있다.

민족의 최고존엄을 우롱하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대화탁이 아니라 력사의 단호한 심판이고 정의의 무자비한 징벌이다.

남조선당국은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 철 민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한 엄격한 수사를 주장

남조선의 천주교 마산교구소속 종교인들이 4월 28일 경상남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완종사건에 대해 엄격히 수사할것을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박근혜의 불법적인 《대통령》선거자금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성완종사건은 박근혜의 불법《대선》자금과 권력실세의 불법정치자금이 련루된 권력형부패사건이라고 말하였다.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이 유서에서 밝힌 8명은 모두 박근혜《정부》의 핵심실세들이라고 하면서 불법자금은 《대통령》선거당시 《새누리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장이였던 홍문종을 통해 전달되였다고 폭로하였다.

박근혜가 자신이 련관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이니 뭐니 하며 사건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국무총리》사퇴로 꼬리자르기 등을 일삼고있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울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성완종사건의 핵심은 박근혜의 불법《대선》자금문제, 권력실세의 불법정치자금문제라고 하면서 이로써 지난 《대통령》선거가 총체적으로 부정선거였다는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한 수사는 신속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만평 《부메랑》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5월이 북남관계에서 그 무슨 《해빙기》니, 《전환의 시점》이니 하는 구구한 말들이 나돌고있다. 그런가하면 남조선보수당국은 《남북당국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사업추진》이니,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소통과 리해의 폭이 넓어지고 남북관계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느니 뭐니 하며 마치도 저들이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이 생색을 내고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저들의 동족대결적정체를 가리우고 북남관계문제, 민족의 통일문제를 저들의 정치적롱락물로 만들려는 보수당국의 얄팍한 술수이다.

북남관계가 극도의 적대관계가 되여 오늘까지 악화만을 거듭해온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의 분렬이 장장 70년을 헤아리는데도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의 방향이 아니라 아직도 끝이 없는 불신과 대결에로 질주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동족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 대화의 일방이 아니라 적으로 보면서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끊임없이 벌리는 동족대결소동, 북침전쟁준비책동때문이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공화국은 년초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할것을 중요하게 호소하였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진정어린 호소에는 귀를 닫고 《북조선붕괴》를 떠드는 미국의 목소리만을 새겨들으며 외세와 한짝이 되여 북침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대규모전쟁연습을 끌끌내 강행하였다.

근 2달동안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진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어느 순간에 열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에 처하게 되였다.

아직도 남조선에서는 북침전쟁연습의 불구름이 가셔지지 않았고 반공화국삐라살포와 《인권》모략소동 등 형형색색의 대결소동이 그칠새 없이 벌어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를 전쟁접경의 최극단에까지 몰고간 저들의 죄악은 당반우에 올려놓고 대결전쟁소동을 계속 벌리면서 그 무슨 《대화》니, 《관계개선》이니 하고 운운하니 낯가죽도 두껍다 해야 할것이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 동족의 존엄과 체제를 부정하는 대결소동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북남사이에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넣은 저들의 죄과부터 인정하고 반성하여야 하며 이제라도 민족에게 화만 들씌우는 범죄적인 북침불장난과 동족대결책동에서 손을 떼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마땅하다.

본사기자 최 광 혁

《날라리의 우국》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의 글

지난 7일 남조선 《매일신문》(인터네트)에 《날라리의 우국》이라는 제목으로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가 쓴 글이 실리였다.

이 글을 요약전재한다.

박근혜《대통령》의 집권 1년차는 《국정원》선거개입사건, 집권 2년차는 《세월》호침몰로 날을 새더니 집권 3년차는 성완종사건과 불법《대선》자금사건으로 시작됐다.

래년부터는 집권말기의 권력루수현상이 시작되는 것만큼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무엇인가 해볼수 있는 마지막해이다.

그래서 신임《총리》를 내세워 느닷없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을것이다.

하지만 국면전환을 위해 던진 그 카드는 부메랑이 되고말았다.

취임식에서 부패척결을 웨친 리완구《총리》는 자기자신을 척결하는 빛나는 업적을 남긴채 쓸쓸히 공관을 떠나야 했다.

되돌아보니 이 《정권》에서 내세운 《총리》나 《총리》후보는 전원락마했다.

김용준, 정홍원, 안대희, 문창극, 리완구이다.

특히 정홍원은 후임자가 없어 락마조차 못하는 바람에 《불멸의 총리》라는 영예까지 얻었다.

《총리》 하나 제대로 못 고르는 《정부》라니 얼마나 한심한가?

경제문제도 꼬이였다.

가계부채가 한달사이에 4조원이 증가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가 하면 청년실업률은 11.1%로 외환위기이후 최악의 상태를 기록했다고 한다.

하도 외국려행이 잦아 《외교》는 잘하는줄 알았다.

하지만 순방의 성과라고 해봐야 사실 한복의 아름다움을 해외에 알린것외에 뚜렷하게 잡히는 것이 없다.

남북관계는 어떤가?

리명박《정권》이후 남북관계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고 관계랭각으로 북핵과 관련한 무슨 가시적성과를 거둔것도 아니다.

《관계개선》도 못하면서 《통일대박》부터 웨친다.

《참여정부》시절 세계 26위까지 올라갔던 언론자유지수는 현재 67위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꼴찌수준이다.

하긴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좀 날렸다고 압수수색에 구속령장까지 발부된다.

이런것은 전두환시절에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퇴행은 사회의 곳곳에서 확인된다.

퇴행은 오래전에 시작됐다.

21세기 디지탈시대에 리명박《정권》은 하필 1차산업(자원외교)과 2차산업(4대강사업)에 국운을 걸었다.

수십조에 달하는 엄청난 혈세를 들여 기껏해서 해놓은것이 정보사회를 산업사회로 되돌려놓은것이다.

리명박《정권》이 토대를 과거로 되돌렸다면 박근혜《정권》은 그뒤를 이어 상부구조마저 과거로 되돌리고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미 잃어버린 10년에 더해 다가올 10년마저 고스란히 잃어버릴것 같은 예감이 든다.

요즘은 나같은 날라리도 솔직히 나라가 걱정된다.

본사기자

미국과 일본의 침략기도를 단죄

지역에서 군사적패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과거죄악을 부정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하는 일본을 비호두둔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미국과 일본이 저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조선반도에서 군사작전을 벌려놓아도 남조선은 이를 지켜볼수밖에 없게 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의 무기한 연기가 불러온 후과가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고 개탄하였다.

이어 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은 이번에 《미일방위협력지침》이 새롭게 개정발표됨으로써 일본《자위대》가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한없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미군과 공동으로 군사행동을 벌릴수 있게 되였다고 까밝혔다.

일본의 군사행동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저촉되고 민족의 리익에 배치되는것으로 하여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미국대사관을 향해 시위행진을 하였다.

미국대사관앞에서 그들은 미국의 군사적패권야망과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을 반대하는 선전활동을 벌렸다.

본사기자

최악의 인권유린란무장, 민생페허지대-남조선

인권페허지대에서 울리는 《북인권》 타령

최근 남조선보수패당은 있지도 않는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걸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와 남조선사회내부에서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인간쓰레기에 불과한 악질《탈북자》들을 국제회의장에 내보내여 거짓증언과 비방중상에 매달리게 하는가 하면 《국회》에서는 또 《새누리당》 패거리들이 《북인권법》이라는것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기염을 토하고있다.

이 모든것이 《인권》을 구실로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고 사회에 반공화국대결광풍을 불러일으켜 저들의 대결책동을 합리화하는 한편 극악한 인권범죄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감춰보려는 남조선당국의 어리석은 술책이라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보수패당은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기 전에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동토대로 만들어놓은 저들의 죄과부터 반성해야 한다.

남조선사회에 만연한 로동자, 농민, 장애자를 비롯한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를 다 꼽자면 끝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참사 1년을 맞으며 투쟁에 떨쳐나선 각계층 인민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만 놓고보자.

하루아침에 수백명의 꽃같은 생명이 바다속에 수장된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남조선에서는 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집권당국의 반성과 사과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국회》에서 북의 《인권》에 대해서는 곧잘 떠들어온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저들의 무능력과 재벌들의 부정부패, 인권과 안전에 대한 무관심성이 몰아온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는 관련법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않고 당리당략을 노린 정쟁에만 매달리고있다. 참사의 직접적책임자이고 당사자인 《대통령》은 물론 허수아비《총리》조차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달아나고 잔고기에 불과한 선장과 선원들만 법정에서 죄인으로 몰리고있다.

생때같은 자식들,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이 참고 참다 못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여 지난 1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의 거리들로 떨쳐나섰을 때 보수패당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청와대로 향하는 시위대의 앞길을 경찰뻐스로 가로막고 고농도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시위대를 향해 마구 쏘아대여 수십명을 부상시키고 련행하는 횡포를 감행했다. 오죽하면 경찰을 향해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던 유가족들이 서로의 목을 노끈으로 련결해 묶으면서 《가족들은 여러번 죽었다.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다. 정말 죽고싶다.》고 절규했겠는가.

남조선당국의 이같은 잔인한 탄압행위는 아이들과 유가족들을 두번세번 죽이는 야만행위이며 남조선이야말로 인간의 삶,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유린하는 인권페허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산 증거이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치떨리는 인권유린만행은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세계의 량심있는 사람들의 저주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유엔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라는 유엔기구도 남조선당국에 《시위해산을 위한 과도한 공권력행사와 〈정부〉 정책또는 대규모개발계획에 반대하는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기소》와 《〈보안법〉을 악용하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데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당국이 있지도 않는 북의 《인권》문제를 물고늘어지면서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매달리는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 동족대결의 극치이다.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의 《인권》을 떠들기 전에 저들내부의 심각한 인권문제부터 제대로 반성하고 바로잡는데 신경을 쓰는것이 어느모로 보나 정상적인 일이다.

리 어 금

처절한 항거의 표시

목과 목을 노끈으로 매고 서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처럼 한줄로 된 노끈으로 목을 매고 서있는가.

그들에게 있는 《죄》란 돈이 없는것이고 《세월》호참사피해자들이라는것뿐이다.

《세월》호가 침몰된 때로부터 1년동안 유가족들은 물론 온 남조선인민들이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똑똑히 밝히라고 한목소리로 웨쳤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였는가.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진상규명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인민들을 두고 살인에 책임이 있는 독재《정권》은 범죄자인듯 마구 탄압해왔다. 정당한 요구를 하는 시민들에게 《종북》의 모자를 씌우고 유가족들에게는 몇푼의 돈을 흔들며 《시체장사군》이라는 모독적인 발언도 하였다. 얼마전에는 유가족들과 인민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결같이 반대하는 기만적인 《〈세월〉호특별법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민심의 분노가 더욱 활화산처럼 터지게 하였다.

수백명의 아이들을 죽여놓고도 진상규명을 회피하며 2중3중의 살인죄악을 저지르고있는 남조선당국이다.

이에 더는 참을수 없어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목과 목에 노끈을 이어가며 《가족들은 여러번 죽었다.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다. 정말 죽고싶다.》며 당국의 살인만행을 단죄하고있는것이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고도 《죄인》처럼 취급당하며 탄압받는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목에 걸린 노끈은 인권말살의 파쑈독재권력에 대한 피맺힌 분노와 처절한 항거의 표시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얼마전 남조선에서 현 집권자를 《괴물》이라며 신랄히 조소하고 규탄한 글이 나와 각계의 이목을 끌고있다.

피물이란 알수 없는 괴상한 동물,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그러면 필자는 왜 하필 현 집권자를 《대통령》이 아니라 《괴물》로 묘사하며 저주와 분노를 퍼부었겠는가.

아래의것은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인 《세월》호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가 5일 청와대홈페지에 실어 집권자앞으로 보낸 글의 일부분이다.

《사실 나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싶지 않고 지금 당신을 〈대통령〉으로 존중하지도 않는다. 왜냐면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의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세월〉호참사를 대하는 당신의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계산된 태도에서 인간의 모습이 아닌 철면피한 괴물의 모습을 보아왔기때문이다. 정치적상황이 조금 유리하게 전개되자 자신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당신의 모습에서 차디찬 얼음덩어리야수의 얼굴을 보았다.》

철면피한 《괴물》, 차디찬 얼음덩어리야수.

이것은 그 하나만이 아니라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남조선의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이 현 집권자를 어떻게 보고있는가를 적라라하게 보여주는 표현들이다. 사실 수백명의 아이들을 비롯한 승객들이 바다에 빠져죽은 《세월》호참사는 남조선인민들이 평하듯이 총체적으로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참혹한 비극이였다. 그 정점에는 《대통령》이 서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 집권자는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행동하여왔는가.

분향소에 가서는 유가족도 아닌 사람을 놓고 《위로》를 연출하는가 하면 청와대로 찾아온 유가족들을 매몰차게 외면한것이 바로 현 당국자이다. 참사발생 1년이 되는 날에 해외로 도피행각을 떠난것도 부족하여 진상규명과 《시행령》폐기를 요구하여 떨쳐나선 유가족을 포함한 수많은 인민들에게 고농도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쏘아대고 수십명을 련행하게 한 장본인도 다름아닌 남조선집권자이다. 지어 자기가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 철면피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그가 TV앞에 서서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한것은 거짓이였다.

수백명의 아이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여놓고도 아무 책임도 느끼지 않으며 유가족들을 랭대하고 탄압하며 1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을 회피하는데만 매달리는 현 집권자의 모습에서 《대통령》은 고사하고 어디 인간의 량심과 피가 뛰는것을 꼬물만큼이라도 느낄수 있는가. 그 철면피하고 오직 권력유지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며 인민들이 너무도 분노하여 《괴물》이라며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를 터친것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력대로 남조선에서 파쑈독재와 반인민적통치로 악명을 떨친 집권자들이 많았지만 현 집권자처럼 인민들로부터 《괴물》로 불리우며 손가락질당한 집권자는 없다.

민심의 저주를 받으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고 했다.

남조선집권자는 분노한 민심을 바로 읽고 행동을 바로해야 할것이다.

정 학 준

사람인가, 《괴물》인가

《어버이날》의 스산한 풍경

남조선에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매년 이날이 오면 자식들이 성의껏 준비한 카네숀을 부모들에게 달아주기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자기 부모들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주려는것이 《어버이날》의 제정목적이라고 한다.

하다면 남조선에서 《어버이날》은 어떻게 흘러가고있는가.

지난해의 《어버이날》에 있은 일이다.

다 아는것처럼 지난해 4월 수백명의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간 《세월》호대참사는 부패한 자본과 권력이 밀착되여 발생한 인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똑바른 구조대책 하나 세우지 않아 바다에 빠진 사람들중 단 한명도 구해내지 못하였다. 부자집자식들이 아니라고 해서, 인명보다 돈과 권력을 더 중히 여겨 《구조》흉내만 피우면서 모두를 죽게 만들고는 초상집으로 화한 남조선땅에 오바마를 끌어들여 동족대결의 역겨운 입맞춤을 해댔다.

이에 격분한 유가족들과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은 《어버이날》을 계기로 붉은 카네숀대신 노란 리봉을 가슴에 달고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과 《박근혜〈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초불문화제와 궐기대회를 도처에서 벌리였다.

실로 눈뜨고 볼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였다. 그들이라고 왜 《어버이날》을 맞으며 존경하는 부모들에게 꽃송이를 주고싶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수백명의 아이들이 참살당한 비극앞에 몸부림치며 살인《정권》에 대한 치미는 분노를 삭일수 없어 손에 꽃이 아니라 분노의 주먹을 싸쥐고 투쟁의 거리에 결연히 나선것이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어버이날》을 맞는 남녘의 풍경은 어떠한가. 분노한 민심에 칼질하는 파쑈폭거로 하여 민심의 분노는 더욱 하늘에 닿고있다. 1년이 지나도록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회피해온 살인《정권》을 규탄하고 《박근혜퇴진!》을 부르짖는 유가족들과 인민들의 함성이 매일같이 거리와 거리를 메우고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한순간에 물속에 매장시키다 못해 진상규명의 요구까지도 탄압하는 이러한 파쑈적인 만행을 두고 이 세상 어느 부모인들 이를 갈며 투쟁에 떨쳐나서지 않겠는가.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은지 1년이 지난 오늘도 남조선은 초상집분위기에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버이날》을 어떻게 편안히, 즐겁게 쇨수가 있었겠는가.

독재《정권》의 야만적인 행위로 하여 슬픔과 분노가 차넘치는 남조선, 이것이 《어버이날》을 맞은 남조선의 스산한 풍경이다.

본사기자 김 철 호

거꾸로 된 세상

5.1절은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이다. 우리들의 명절이라 직장동무들과 함께 모란봉에서 즐겁고 흥겨운 하루를 보내였다.

그런데 한지맥으로 이어진 남조선에서는 이 땅의 현실과는 너무도 판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우리처럼 명절을 즐겨야 할 로동자들이 경찰들이 쏘아대는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에 얻어맞고 또 철창속에 끌려갔다. 5.1절이 남조선로동자들에게는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 최루액에 쓰러지고 곤봉에 얻어맞으며 경찰에게 끌려가는 서글픈 날로 되였으니 같은 로동자로서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

재부를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는 로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존대받기는커녕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한다고 하여 파쑈독재의 희생물로 되여 탄압을 당하고있으니 이런 야만의 세상이 지구상 또 어디에 있겠는가.

정말 남조선은 모든것이 거꾸로 되여있는 사회이고 민생을 죽이는 사람못살 세상이다.

류원신발공장 로동자 김 유 철

생존권을 짓밟는 야만의 사회

TV를 통해 본 남조선 경찰들이 로동자들에게 가하는 무차별적인 파쑈적폭압만행은 그야말로 피를 보고 날뛰는 야수들의 행동을 그대로 련상케 한다. 도대체 남조선로동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 경찰들이 미쳐날뛰는가 하는것이다.

그들이 요구한것은 초보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단순한것이다. 사람은 공기만 마시고 살수 없는 법이다.

돈이 없으면 한시도 살수 없는 남조선사회에서 몇푼의 돈조차 없어 초보적인 생존권을 유지하기 힘들어하는 로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로임을 좀 올려달라고 요구한것이 죄로 되여 그들은 최루액벼락을 맞고있는것이다. 정당한 요구를 하는 로동자들을 파리잡듯 마구 폭행하는 남조선경찰의 만행은 그야말로 인권유린의 극치이다.

살아보겠다는것이 죄로 되여 처벌받는 남조선사회야말로 세계최대의 인권동토대, 인권유린지대이다.

평양곡산공장 로동자 염 철 준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미술가들

민족의 넋을 화폭에 수놓아온 리쾌대 (2)

해방전 사실주의화가로서 많은 작품들을 내놓은 리쾌대는 8.15를 남조선에서 맞았다. 해방만세의 환호가 삼천리를 진동하던 나날 그는 피어린 항일대전으로 나라를 다시 찾고 민족재생의 봄을 안아오신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흠모심으로 가슴끓이였다.

서울에서 조선미술건설본부가 설립되자 회원으로 된 그는 해방기념미술전람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온갖 성의를 바치였다.

리쾌대는 남조선에서 사회활동을 벌리면서 여러 작품들을 창작발표하였다. 유화 《동지》(1946년), 《귀향》(1946년), 《자유》(1946년), 《조난》(1947년), 《정물》(1949년) 등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그는 해방이 가져온 벅찬 환경속에서 새로운 민족미술건설에 대한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미군이 강점하고있는 남조선에서 걸음걸음 시련과 좌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1950년 미국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아 조선전쟁이 시작되고 인민군대에 의해 서울이 해방되자 리쾌대는 갓 조직된 조선미술가동맹에 가입하였고 의용군에 입대하여 종군기자로 활동하였다. 그는 1953년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와 미술가로서의 참다운 창작적 보람을 가지고 명작들을 내놓았다.

사실 리쾌대는 지난 시기에는 갖가지 서방부르죠아형식주의의 총체인 모더니즘의 영향속에서 헤매였었다. 기초실력이 든든하였으나 창작경향에서는 언제나 프랑스후기인상주의, 상징주의에 물젖어있었다. 이로부터 문제성있는 주제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개별적인 인물초상이나 정물을 그리는데 많이 치우치게 되였다.

그는 공화국의 품에 안긴 후에야 창작방법으로서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알게 되였으며 이때부터 그의 창작활동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1950년대 중반기부터 그가 창작한 유화 《3.1인민봉기》,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 《송아지》, 《박연초상》, 《농악무》 등은 이전시기와는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묘사의 객관성과 재치있는 기교가 주제내용을 부각시키는데로 통일되여있다.

그의 창작에서의 급격한 전환은 사회적조건과 환경이 화가의 작품창작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준다.

유화 《3.1인민봉기》는 조선독립의 함성이 메아리치던 1919년 3.1인민봉기를 그대로 전형화하였다.

백의동포의 상징인 흰 두루마기를 입은 주인공들과 물밀듯 밀려나오는 수천의 군중들의 형상은 실제한 그 시기를 방불케 한다. 이 작품은 전경으로 본 구도를 통해 3.1인민봉기의 력사적진실을 생동하게 펼치고 있다.

제6차 모스크바세계청년학생축전에 출품된 이 작품은 각국 청년학생들의 커다란 관심과 감흥을 불러일으킨 명작이다.

유화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은 식민지파쇼통치가 실시되는 남조선에서 살기 어려워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불우한 농촌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어린 자식을 업은 고달픈 농촌녀성은 저쪽의 고향마을을 돌아보고 보짐을 진 아버지는 정처없는 눈길로 걸어가고있다. 철없는 소녀애는 어머니뒤에 약간 보이도록 그려져있다.

우의 세 인물을 압축하여 답답하게 작품을 구성한 리쾌대의 조형적의도는 래일에 대한 아무런 기약도 없이 고향을 떠나는 이들을 통해 일제시기나 남조선같은 숨막히는 세월이 흐르는 그러한 사회제도에서는 근로인민이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예술적으로 펼쳐보이는데 있다.

유화 《송아지》(1961년)도 구도가 독특하다. 송아지들을 앞에 세우고있는 처녀관리공의 정성어린 모습이 형상되여있다. 반질반질한 송아지들의 털질감묘사는 색채적으로 훌륭히 형상되였고 여기에 처녀관리공의 흰색옷이 멋있게 대조되여있다. 색채들은 화면안에서의 조화를 이루고있으며 작은 세부까지도 통일속에서 묘사되고있다.

리쾌대의 창작활동을 통하여 더욱 똑똑히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개별적인 창작가의 미학관형성과 창작방법은 해당 사회제도의 직접적영향을 받는다는것이다.

이제는 세기가 바뀌여 10여년이 지나갔다. 민족의 운명과 함께 곡절많은 삶의 길을 걸어온 오랜 화가들도 거의나 떠나가고 없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많은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재능있는 화가인 리쾌대의 작품은 오늘도 살아 겨레의 마음속에 빛을 뿌리고있다.

최명수

(끝)

유화 《농촌풍경》

유화 《춤》

유화 《정물》

고유한 우리 말 《맛》과 《멋》

《맛》과 《멋》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언어로서 생활에서 인민들의 정서를 잘 반영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래 《맛》과 《멋》은 같은 뜻으로 쓰이였는데 상류층에서는 《맛》이라고 하였고 하층에서는 《멋》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나온 《맛》과 《멋》은 1800년대까지는 별다른 차이가 없이 쓰이다가 《멋》은 감상적인 정서를, 《맛》은 감각적인 정서를 표현하는것으로 쓰이게 되였다.

《맛》이 《달콤하다》, 《짭짤하다》, 《구수하다》, 《시큼하다》 등의 감각적인 정서를 표현한다면 《멋》은 《훌륭하다》, 《허세를 부리다》, 《구성지다》, 《거들먹거리다》와 같이 감성적인 정서를 나타낸다.

❖ 우리 겨레는 예로부터 《음양오행설》에 기초하여 음식물의 맛을 조화시키는 슬기를 터득하여왔다.

신맛과 쓴맛, 쓴맛과 단맛, 단맛과 매운맛, 매운맛과 짠맛, 짠맛과 신맛 등을 조화시키는것을 《5미상생》이라고 하였는데 이 원리에 따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치의 독특한 맛을 창조할수 있었다. 또한 신맛은 단맛에 의하여, 단맛은 짠맛에 의하여, 쓴맛은 매운맛에 의하여, 매운맛은 신맛에 의하여 억제되는것을 《5미상극》이라고 하였는데 메주의 단성분이 소금물의 짠성분에 의하여 억제되는 원리로 메주장을 만들었다.

❖ 《멋》은 《맛》이 가지고있는 감각적개념을 내포하고있으면서도 삶의 기쁨, 슬픔과 같은 인간의 내면적이면서도 감상적인 정서를 표현한다고 볼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멋있는 남자》, 《멋있는 녀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과 성격, 옷매무시 등 내용과 형식을 통칭하여 하는 말이다.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민족의 정서적표현수단인 《멋》은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속에서 자기것에 대한 긍지감을 더해주는 말로서 《우리의 멋》, 《우리의 식》, 《우리 식 사회주의》라는 표현으로 널리 쓰이고있다.

본사기자

신비의 불로초-령지버섯

신비의 약재로 알려진 령지버섯은 산삼에 맞먹는 불로초라고도 한다.

《본초강목》에는 령지버섯을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아 신선이 되는 령약》이라고 쓰고있다.

세계 여러 나라 학자들의 연구결과 령지버섯이 간암, 유선암, 위암, 직장암을 비롯한 각종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가 뛰여나다는것이 밝혀졌다.

한 학자는 《유선암환자에게 한달동안 령지버섯물을 먹이고 1년간 관찰한 결과 암이 더 이상 악화되거나 전이되지 않고 오히려 증세가 호전되였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항암작용뿐아니라 간장개선, 콜레스테롤억제작용, 혈전억제, 성인병예방, 면역증강, 로화억제, 에이즈억제에 관한 효능도 여러 경로를 통해 립증되였다.

령지버섯은 또한 우주비행사들에게 효험이 있다.

로씨야 유리 가가린 우주쎈터 의학연구소 소장 울라지미르 알렉쎄예브박사는 《고도 5 000m의 환경에 해당하는 저산소과부하상태에서 우주비행사 10명에게 매일 아침저녁으로 령지버섯정액을 한달동안 먹인 결과 생화학적 매개변수 및 면역지수를 정상으로 회복시켰으며 과부하, 저산소상태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령지버섯이 이러한 효능으로 하여 다음세대의 성인병예방약으로 될수 있는 충분한 전망을 가지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사화

설매 (7)

글 박민한, 그림 김윤일

나그네는 보다 못해 웃음어린 나직한 소리로 《무슨 술을 그리도 많이… 허허…》하고 술병을 다잡은 설매의 손목을 쥐였다. 그러나 취기가 어지간한 설매였다. 《호호… 무슨 소리오이까. 술은 마주앉은 상대가 좋으면 천잔도 적소이다. 호호…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 나그네인데.》하며 흐뭇이 잔을 기울였다.

《나는 날이 지새기 전에 떠나야 할 몸이니 이만…》하며 나그네는 상에서 물러앉았다. 그러거나말거나 설매는 제 흥에 겨워 말끝을 맺으려 하지 않았다.

《기생이라고 어찌 한 사나이를 지아비로 섬겨 부부화락하게 동거동락할 생각이 없겠사와요. 내 가슴속엔…》하고 제 가슴을 짚어보이며 말을 이었다.

《그때 그 젊은이를 벌써 오래전부터 나의 님으로 고이 간직하였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충신의 편에 섰다니 그리운 정 더욱 끌이 없소이다. 내 한갓 기생으로 남아장부처럼 위국충절을 못할망정 한 장부만을 랑군으로 섬기는 아녀자야 되지 못하리까.》하며 눈물을 흘렸다.

충신에 대하여 지금껏 그쯤하게 알고있었으나 나그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젊은이가 충신의 편에 서있다는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충신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진 설매였다.

그들이야말로 지조높은 의기남아들로서 참인간일것이라는 확신속에 충신이라면 무조건 숭앙하고 편들어주고싶었다. 아울러 취중이래도 충신의 곁에 함께 선 렬녀(설매)라는 한껏 부푼 긍지도 없지 않았다.

《진정 그 마음이 고맙고…》

감동에 젖은 나그네의 목소리였다.

《기생이라고 이 품저품에 안겨살기는 죽기보다… 지금껏 그이를 사모하여 순정을 고이 지켜냈으나 음산한 세월속에 장차 어찌 될는지.》하며 설매는 흐느껴울었다.

《그만 진정하구 자리라는 생활속에서 마주한 대방의 속심을 첫눈에 알아맞추는 륙감이 싹터 자랐으며 그것은 거의나 틀림이 없었다. 하여 간밤에 들이닥친 나그네도 첫순간에 후덥게 느껴지는 용모거동으로 보아서 불의한짓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하였었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과는 상반되는 너무나도 엄청난것이 아니란 말인가. 《목침》과 《옥지환》은 몰라라 하여도 분명 처음(간밤의 나그네가 부정한 사내였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옥지환은 무엇일가?)

취중에 깊이 잠든 생각뿐 나그네와 상합한듯 한 기억은 생판이였다.

설매는 오래된 기생이라는 생활속에서 마주한 대방의 속심을 첫눈에 알아맞추는 륙감이 싹터 자랐으며 그것은 거의나 틀림이 없었다. 하여 간밤에 들이닥친 나그네도 첫

순간에 후덥게 느껴지는 용모거동으로 보아서 불의한짓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하였었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과는 상반되는 너무나도 엄청난것이 아니란 말인가. 《목침》과 《옥지환》은 몰라라 하여도 분명 처음으로 당해보는 녀성으로서의 류다른 체감은 그 나그네를 백번 부정한 사나이로 몰아붙여도 남음이 있었다. 어느새 설매의 가슴속에선 통분이 늪가의 새벽안개처럼 일기 시작하였으며 땅속을 뒤져서라도 그 나그네를 기어이 찾아내여 단칼에 요정을 내리라는 각오로 언제나 호신부처럼 간수한 품속의 비수를 슬며시 매만져보았다.

실로 기생들은 《로류장화》의 신세였다. 이 말은 길가의 버드나무나 담장밑의 꽃송이처럼 뭇사내들이 제 마음대로 꺾고 버릴수 있다는 뜻을 담고있다.

이런 속에서 자기의 순정을 지켜낸다는것은 여간한 결심과 아울러 생사를 내대는 단호한 대응을 행하지 않고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였다.

하여 설매는 기생놀이에 불리워갈 때면 다른것은 잊어도 비수만은 품속에 숨긴채 집밖에 나서는것을 잊지 않았다.

기생놀이판에서 부정한 허드레잡것들이 완력으로 순정을 앗으려 할 때엔 너 죽고 나 죽자는 의미에서 대방의 손을 슬며시 이끌어 품속의 비수를 만져보게 하였다. 이리되면 위태로운 고비는 넘기군 하였다.

나돌던 흉흉한 소문처럼 리성계는 끝내 1392년 7월에 공양왕을 밀어내고 조선봉건왕조의 태조가 되였다. 이것은 분명히 고금에 흔치 않은 불법무도한 찬탈이였으며 만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였다. 그러거나말거나 후안무치한 리성계는 고려왕조에 끝까지 충성하려는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숙청에 열을 올렸다.

여러 생각속에 잠겼던 설매는 밖에서 성급히 찾는 소리에 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내용인즉 벼슬을 지내던 고려의 충신들이 리성계에게 불복한다는 뜻에서 송도(개경)를 영영 떠나려고 경덕궁앞을 지나가고있다는것이였다. 이 소리에 서둘러 대문밖을 나선 설매는 사람들속에 끼여 경덕궁앞 언덕길에 도착하였다.

재를 넘던 여러 충신들은 차례로 갓을 벗어 길가의 나무가지에 걸어놓고 연줄로 충신의 의지를 피력하며 역겨운 세상을 보지 않으려 어디론가 떠나가고있었다.

충신 조의생은 껄껄 웃으며 《두문불출을 달게 여기고 죽으리로다.》

충신 림선미와 고천상은 호탕한 웃음속에 《마땅히 그 뜻을 따르리라.》

충신 심안은 경덕궁을 쏘아보며 《새 임금은 우리 임금이 아니거니 어찌 두 임금을 섬기는 신하가 되리오.》

충신 구홍은 하늘을 우러르며 《백이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이뇨.》

충신 김충한은 분기가 가득한 목소리로 《원하노라, 백이처럼 서산에 가서 고비를 캐먹으리.》

충신 박심은 멀리의 수창궁을 우러르며 《원컨대 고려의 산천에 일편단심 변치 않으리라 맹세하노라.》…

주소 :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 집 위 원 회